



예술인 열전 | 서양화가 박정

#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때만난그림



몸이 불편한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삶의 소중함, 감사함’ 깨닫길  
영화 같은 작가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행복 그리고 감사함

서양화가 박정. 그의 인물화와 마주할 때면 늘 연상되는 것이 있다. 수녀, 신부, 승려 같은 수행자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편안함. 또는 맑음. 그런 분위기는 아마도 작품 속 인물들의 눈동자에서 나오는 듯하다.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창이라더니. 오랫동안 작품 앞에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입 밖으로 새어 나온 말. “닿았다!” 그래, 정말이다. 작가와 작품 속 인물이 닿았다. 맑은 영혼이 깃든 듯, 평화로운 인상이 꼭 닮았다.

“그런 얘기가 가끔 들어요. 동료 작가들 중에는 ‘널 그린 거냐고 직접 묻는 이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작품은 결국 작가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작품만 보고도 저를 알아봐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지요.”

박정 화가는 구필화가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란 말이다. 그는 사지가 마비되어 혼자서는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우리는 안다. 몸이 고달프면 삶도 덩달아 고달파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감기만 걸려도 만사가 귀찮다.

“껌테기는 이렇게 묶어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롭죠.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작품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불편한 육신을 그림에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 내면, 생각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1. 박정화가  
2. (또다른)시선  
3. 구필화가인 남편을 위해 아내 임석순씨가 고안해 낸 조개껍데기 팔레트

데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자유로운데요.”

박정 화가의 인물화 속 주인공들이 성직자를 연상케 하는 이유. 그의 작품 앞에 설 때면 그와 마주하는 듯한 이유다.

### 《시선》시리즈에 담긴 박정만의 감성

박정 화가의 대표 작품은 인물화다. ‘시선’이란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관객은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자신을 보고, 타인을

생각한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뒷모습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산다. 남의 뒷모습도 그렇다. 앞만 보고 산다는 말도 있듯이 앞모습이 더 익숙하다. 그러다 문득 마주한 뒷모습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곤 한다. 때론 뒷모습에서 진심을,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박 작가에게 뒷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그때의 느낌이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온 희망

축구선수로 촉망받던 그가 전신마비로 몸이 묶인 건 하루아침의 일이었다. 사고였다. 1991년 그의 나이 18세였다. 사고가 난 뒤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낸 지 2년이 되었을까, 3년이 되었을까. 누나가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그가 물었다. 나도 그림 그리면 안되냐고 몇 년 만에 연필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써봤다. 연필은 손이 아닌 입에 물었다. 기본이 묘했다. 내친김에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컵도 그려봤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그 그림을 보고 얼마나 우시던지. 그때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는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웠을까. 박정 화가는 그렇게 그림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내를 만났다.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사연도 영화 같다.

“누워서 5년 가까이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의 집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쓴 글을 보고 절 찾아왔죠.”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머지않아 결혼을 했다. 이후 박정 화가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상을 하게 됐다. 시상식장에 나타난 그를 보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 방송국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그날밤 박 화가는 KBS 9시 뉴스에 소개됐다. 그리고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학에 입학했고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2



3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이후 오랜 시간 집에 혼자 누워만 있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그리웠죠. 가끔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현관 열쇠를 직접 우체통에서 꺼내 열고 들어와 갈 때도 직접 잡고 떠났어요. 손님이 가는 데도 꼼짝없이 누워 그 뒷모습만 바라보아 했죠. 방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사라지면 곧이어 현관을 나가는 발소리, 열쇠 소리,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려요. 같이 따라

사진으로 보는 세상 - 2018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왕성호 작가의 (제주도 한라산)



\*당진 올해의 사진 작가전에 선정된 왕성호 작가의 전시회 (산따라, 물따라)가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 >>왕성호
-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사무국장
- 당진사진동우회제29,30대 회장
- 2015프란치스코교황방문 1주년 기념 전국사진공모전대상수상등
- 현당진항만(주)운영팀장재직

2016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당선작가의 시선

시 한편 | 정재석

흙에 살리라



- >>정재석
- 한국문인협회회원·충남문인협회회원·당진문인협회전지부장·전당진나루문학회장
- 시집 바람그자리에 머물면/4인시집가슴으로 전하는 말/진짜야(당진문화재단지원)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하늘만 보이는 시골농촌  
 삐꾸기, 산평산골을 짝 채운 울음소리, 꼬꼬리, 종달새, 할미새, 푸드득 거리는  
 소리 듣고  
 고향의 친구들과 어른들을 마주한 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따뜻한 고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척에 두고도 몸소 고향에 묻혀 있지 않으면  
 금새 돌아서도 그리움에 빠지는  
 젊은 시절 재래식 농사로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깊은 정이든 고향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환경도 적응하고  
 풀벌레소리 농기계의 우렁찬 굉음과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의 엔진소리 곁들여 아름다운 자연과 고향을 지키며  
 흙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경계의 발전과 고령화 사회, 저출산 시대, 젊은 여성들의 결혼문화 변화 등의 막장에 처한 현실  
 에 농촌 사회가 무너져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젊은 농군이 많이 늘어나 풍요로운 농촌사회를 지켜 주기를 간절하는 마음에  
 실제로 농사짓고 체험하며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2면에 이어서

작가가 관객에게 하고 싶은 말

초창기 그의 작품은 비구상부문이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첫 입상을 받았던 작품도 비구상이었다. 이후 대학에서 미술공부를 하면서 인물화에 몰입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 그의 대표작은 <시선> 시리즈다. 그렇다고 그의 캔버스에 인물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독수리다.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서 그 특유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독수리는 40년을 살면 환골탈태한다고 하잖아요. 부리로 털과 발톱을 다 뽑고 난 뒤, 부리마저 바위에 쳐서 부순다죠. 그리고 150여일은 견디면 모든 게 새롭게 나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고요. 제가 올해 꼭 마흔이예요. 제 이름과 작품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행동도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좀 더 좋은 분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박정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 희망,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길 바란다. 우연히 자신의 작품을 보고 누가 그랬을까 궁금해진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입으로 어렵게 그린 그림이란 걸 알게 됐다. 그 사실을 통해서 느끼게 되길 바란다. ‘몸이 불편해도 삶은 행복할 수 있구나.’ ‘몸이 온전한 내 삶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통해 관객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행복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의 작업실은 합덕우강들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새벽 5시면 달달달, 경운기 소리가 정겨운 시골이다. 계절이 가는 모습이 한 눈에 펼쳐지는 들녘에서 그림을 그린 지 벌써 12년째다. 올해는 이미 계획된 초대전만 네 곳이다. 전



박정 화에게 찾아온 친사, 아내 임석순씨. 박정 화가 가오릿이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시할 기회가 많다는 것만큼 작가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없단다. 그런 탓에 전시장에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요즘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림을 그린다. “건강한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요. 잠을 잘 못 자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시장에 작품이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하죠. 하얀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과정도 행복이구요.”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갤러리 이레에서 박정 화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어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아트페어에도 참여한다.

글, 사진 우현선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발행처 (재)당진문화재단 | 발행인 이명남(당진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총괄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기획총괄 한황우 | 기획 오수용  
 충남 당진시 무수동 2길 25-21(당진문예의전당) T. (041) 350-2910~6 F. (041) 354-6605/352-6896  
 www.dangjinart.kr / 취재 편집 인쇄 (주)당진시대신문사  
 ※본 책지에 실린 내용과 사진은 당진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8년 핵심사업  
[키즈 스테이지]와 [브랜드 공연]

# 온가족이즐거는 공연 '풍성'

매월자체특별기획공연들 놓치지마세요!



▷ [키즈스테이지] 3월공연  
(뮤지컬인형극 신데렐라)의  
공연 장면



▽ [키즈스테이지] 2월공연  
(아이조아 잼스틱)의 공연 장면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테이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영유아 아이들에게도 음악, 미술과 같은 문화예술 경험이 중요시되고 있다. 두뇌발달은 물론 인성발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상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작해야 애니메이션 영화 관람이나 TV 만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공연 정도다. 특히 클래식을 비롯한 연주회는 연령제한에 걸리기 일쑤다.

그동안 당진문화재단을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유치를 요구해왔다. 가족뮤지컬을 관람한 뒤 최유성 씨는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회원 이준희 씨 역시 "아이들에게 공연장에 가는 습관이나 음악적 감성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함께 다니고 있지만 성인 위주의 공연이 많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아이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획공연이 더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문화재단이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친구가 많은 당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 공연을 연중 실시한다. [2018 키즈 스테이지]가 바로 그것이다. [2018 키즈 스테이지]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재미있고 교육적인 공연을 지역 아동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지역 아동 등 문화배려계층에게 전체 좌석 50% 이내에서 초대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당진문화재단 담당자는 "지역아동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함으로써 정서함양과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8 키즈 스테이지] 2월 공연은 <아이조아 잼스틱>이 진행됐다. 2월3일 2회 공연된 <아이조아 잼스틱>은 퓨전타악 그룹 잼스틱의 무대였다. 연주에만 몰두하는 정숙한 연주회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박수치고 호응하는 무대로 꾸며져 큰 호응을 얻었다. 연주자가 관객석으로 내려가고 관객이 무대로 올라오며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타악콘서트는 특히 어린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했다.

3월 3일에는 [뮤지컬인형극 신데렐라]가 공연됐다. 세계 명작 동화 '신데렐라'가 뮤지컬 인형극으로 꾸며졌다. 이번 공연을 맡은 서울인형극회는 1961년 KBS-TV 개국과 함께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형극단이다. 창단 이후 100여편 이상의 인형극을 제작하고 공연한 바 있다.

올해 [브랜드공연]은 <시네라이브>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전석 무료

당진문화재단은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당진문화재단 브랜드공연]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올해는 <시네라이브>라는 타이틀로 음악영화 또는 뮤지컬 영화를 감상하며 주요장면들을 라이브로 공연할 예정이다. <시네라이브>는 영화상영과 더불어 라이브 음악, 댄스, 연극 등을 병행하는 신개념 콜라보 공연이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마다 전석 무료로 진행한다. 또한 매달 특수직업군, 문화배려계층 등 특별대상을 선정하여 초대할 계획이다.

<시네라이브>는 3월22일 첫무대 '가면 속의 아리아'를 시작으로 연중 총 10회 공연될 계획이다. 계획된 공연으로는 4월 '맘마미아', 5월 '레미제라블', 6월 '사운드 오브 뮤직', 7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8월 '라라랜드', 9월 '헤어스프레이', 10월 '아마데우스', 11월 '파리넬리', 12월 '겨울왕국'이다.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일정은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진문화재단이 올해 두 기획공연을 새롭게 선보인다. [키즈 스테이지]와 [브랜드 공연]이 그것이다. 당진문화재단은 기획공연의 브랜드화를 통해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공적 공연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당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양질의 공연예술문

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당진문화재단의 미래 관객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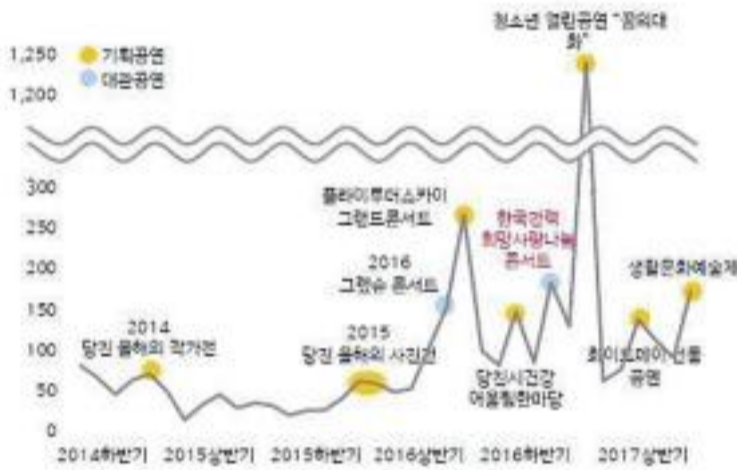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당진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 3월 출범해 현재 5년을 맞았다. 문화재단은 당진문예의전당과 문화예술학교 수탁운영을 맡으며, 당진문화예술의 싱크탱크이자 대표기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문화도시 당진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비전도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라는 가치에 걸맞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전기를 마련했다.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당진문화재단의 5년 활동을 각종 통계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 인용된 통계는 '빅데이터를 통한 2017 당진문화정책연구조사'와 '2017 당진문화재단 모니터링 시민(대관)만족도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을 각각 인용했다. [편집자주]

## 1. 당진문화재단 관심도 추이 / 청소년열린공연 '꿈의대화' 높아



대관공연에 비해 기획공연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다. 분석결과 2016년 청소년 열린공연 “꿈의대화”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2016년 플라이투더스카이 콘서트, 2017 생활예술제, 2016그랫슈 콘서트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 2. 당진문화재단 연관어 분석 / 콘텐츠 중심 정보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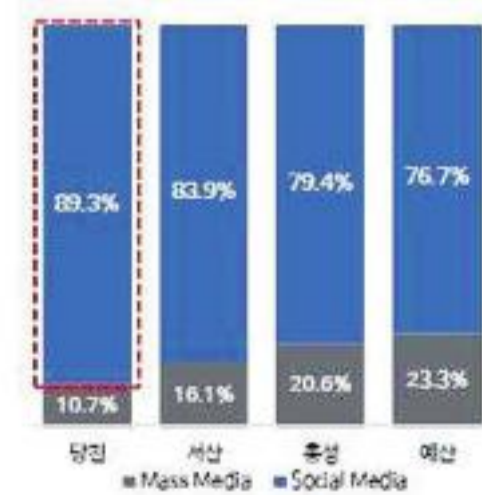
당진문화재단 연관어 분석결과 콘텐츠(71.3%), 운영관리(17.1%), 정책(6.2%), 기타(3.0%), 부정이슈(2.3%) 순으로 관심 비중이 높았고,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보 및 후기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3. 당진문화재단 미디어별 비중 / 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 비중 높아



당진문화재단 미디어별 비중 분석결과 매스미디어(10.7%), 블로그(37.3%), 트위터(36.5%), 인스타그램(14.8%), 페이스북(0.6%), 커뮤니티(0.1%)로 나타났다.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비중이 전체 채널 방문 중 88.6%를 차지했다. 블로그는 '가족', 트위터는 '비스트손동운' 과 인스타그램은 '플라이투더스카이', '엄마', '당진맘' 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됐다.

## 4. 충청남도 문예회관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비중 / 당진-서산-홍성-예산 순



충청남도 4개(당진, 서산, 홍성, 예산) 문예회관의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비중 분석결과 소셜미디어 비중의 경우 당진(89.3%), 서산(83.9%), 홍성(79.4%), 예산(76.7%)순으로 관심도가 높았다. 당진문화재단의 경우 타지역 대비 시민 방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5. 당진문화재단 사업별 시민 관심도 / 기획공연-기획전시 약 70%



당진문화재단 사업별 시민 관심도 분석결과, 기획공연(1,310건), 기획전시(785건), 생활속 예술지원(109건), 국비지원프로그램(320건), 예술인(단체)창작지원(109건), 시민예술교육지원(83건), 문화네트워크구축(26건)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다. 기획공연과 기획전시가 전체사업 관심도 중약 70%를 차지하여 시민담론이 활발하였다.

### 6. 당진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언급량 추이 / 3년 동안 약 6.7배 증가



당진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언급량 분석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대비 2017년 상반기 관심도는 약 6.7배 증가해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당진시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각 문예회관별 시민인지도 분석 / 당진-서산-홍성-예산 순



충청남도 문예회관별 관심도 분석결과, 당진문화재단(4,067건), 서산문예회관(2,004건), 홍성문예회관(1,480건), 예산문예회관(6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당진문화재단에 대한 담론이 근교 문예회관 대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당진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감성어 분석 / 만족 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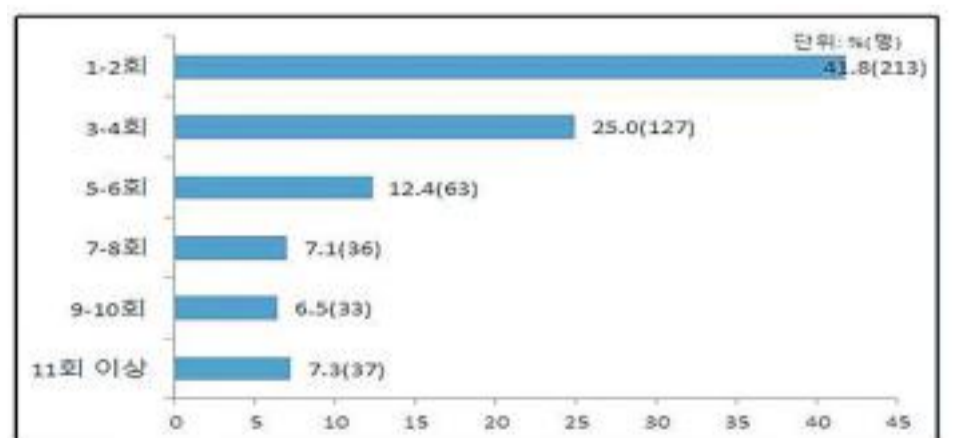
당진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성어 분석결과, 만족 (77.8%), 중립 (16.6%), 불만족 (5.6%)으로 나타났다. 만족요소 분석결과 '힐링이 되는', '바가지 없는', '꿈을 이루는'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됐다. '당진', '힐링'을 함께 분석한 결과 '여행', '왜곡', '미술관'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됐다.

### 9. 충청남도 각시.군별 '문화', '예술' 관심도 /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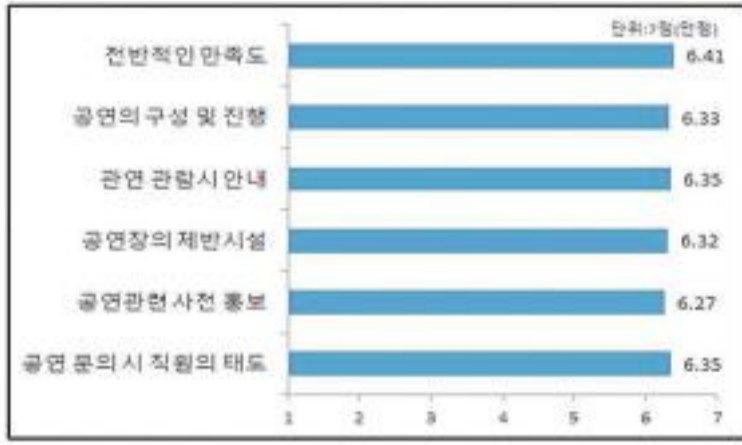
충청남도 각시·군별 '문화', '예술' 관심도 분석결과, 서산(53,397건), 당진(43,788건), 홍성(33,656건), 예산(14,229건)으로 나타났다.

### 10. 문화예술행사 참여정도 / 1년 3회 이상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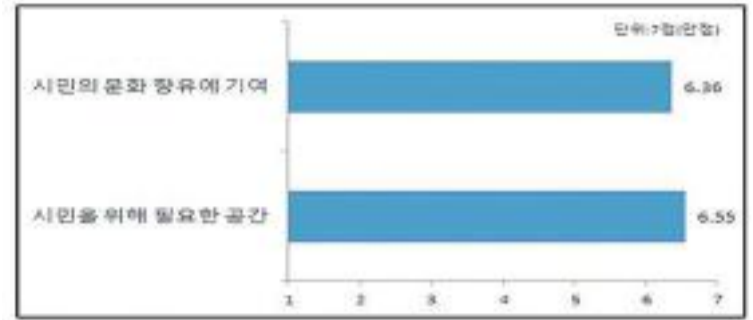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당진문화재단 행사(공연, 전시, 강좌 등)에 몇 번이나 참여하셨습니다? 라는 질문에는 1~2회(41.8%), 3~4회(25.0%), 5~6회(12.4%)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응답자 중에 1년 동안 3회 이상 참여한 비율이 58.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11. 관람공연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 / 평균 90.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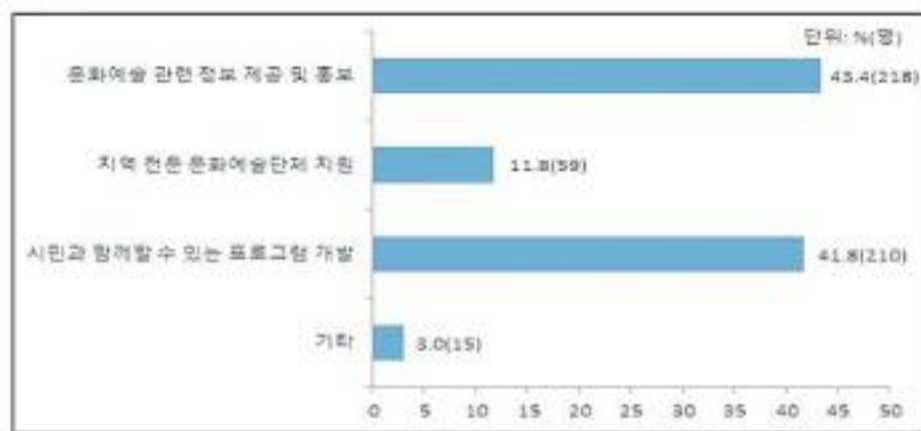
일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6개 문항의 전체 평균값은 90.6점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공연별로 보면 2017년 10월 25일 진행된 '문화가 있는 날' (93.3점), 11월 11일 (92.1점) 등 중·소규모 공연이 대규모 공연인 9월 29일 공연 (89.0점)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왔다. 관람객의 규모와 관람객의 특성이 공연만족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관람객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 당진문화재단의 사회적 공헌도 / 평균 92.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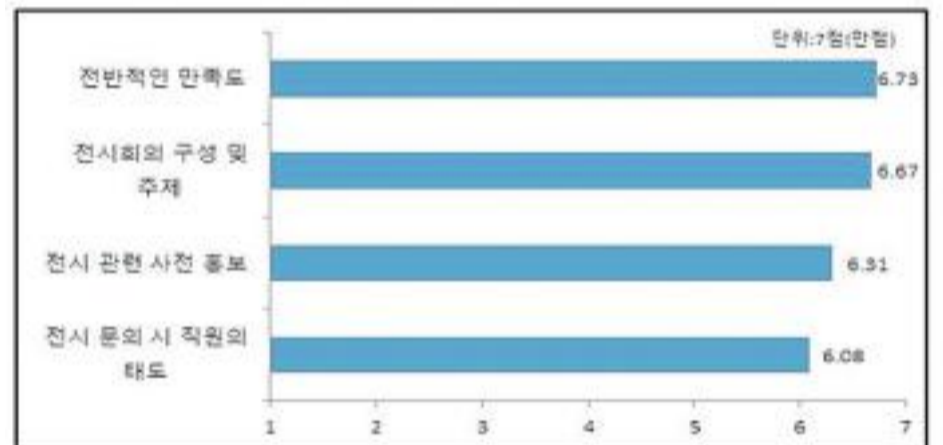
당진문화재단의 사회적 공헌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균값은 92.2점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공연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공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공연 관람 후 효용감'이 높았던 2017년 10월 25일, 11월 11일 응답자들이 당진문예의전당의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사회적 공헌도를 측정한 두 문항을 비교해 보면 '시민을 위해 필요한 공간' (93.6점)이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 (90.8점)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보다 약간 높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성별로 사회적 공헌도를 비교해 보면 남성(92.7점)과 여성(91.9점)에 따른 큰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 13. 당진문화재단이 노력해야 할 부분 / 정보제공-프로그램 개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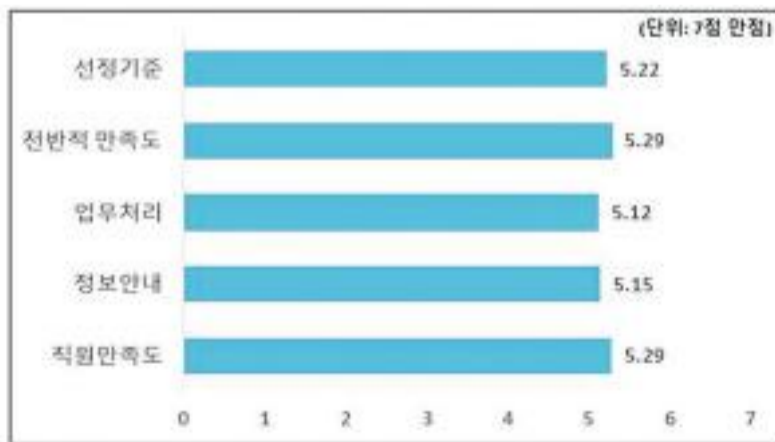
'당진문예의전당(당진문화재단)이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문화예술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43.3%)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41.8%), '지역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 (11.8%) 등 순으로 높게 나왔다.

### 14. 전시회 관람 만족도 / 평균 92.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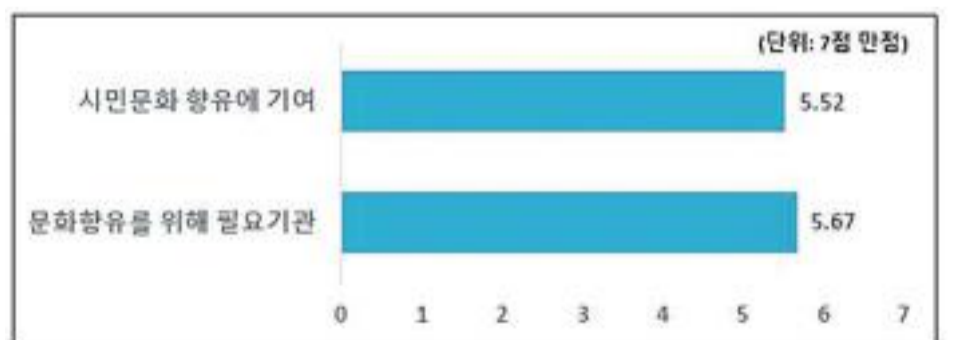
전시회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를 측정한 4개 문항의 전체 평균값을 보면 92.1점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시회의 구성 및 주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전시회의 질이 전시회 관람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 15. 대관참여자 만족도 분석 / 5개 문항 모두 70점 이상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 만족도를 확인해 보면, 전체 평균이 74.49점으로 5개 문항 모두에서 70점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대관 참여 전반적인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75.60점)와 '직원들의 태도' (직원만족도, 75.51점), '사업 및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74.64점)이 평균 (74.49점) 이상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73.18점)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안내' (정보안내, 73.51점)에 대한 만족도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 16. 대관참여자 사업의 사회적 공헌도 인식 / 문화향유 기여 81.05점



'당진문화재단 사업의 사회적 공헌도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문화재단은 당진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 (78.87점), '당진문화재단은 시민 문화향유에 기여했다' (81.05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8년 당진문화재단 사업은?



**보태고** 시민예술활동 **늘리고** 문화예술진흥

● 2018년도 당진문화재단의 정책기본방향은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
  -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등 시민예술교육 지원 확대
2. 시민의 생활문화 육성지원 강화
  - 생활문화활동가 육성 및 동아리역량강화사업 등 운영
3. 문예의전당 기획 콘텐츠 구축
  - 다양한 형식 및 세대별, 대상별 기획 공연 운영

● 2018년도 핵심 정책 과제는 생활문화영역과 문예의전당으로 설정하였다.

핵심과제1 : 생활문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지원 및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생활화 실현

- 당진문화동아리주간 5주년행사 추진 (50개 단체 참여)
- 문화동아리 교육지원인 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 추진
- 문화동아리 공연무대를 지원하는 문화동아리 활성화사업 추진
- 생활문화예술 기획자를 육성하는 생활문화활동가 육성사업 추진
- 문화소외지역 마을문화리더를 양성하는 문화이모작사업 추진

핵심과제2 : 문예의전당 기획 콘텐츠 강화 추진

다양한 공연 콘텐츠 개발로 전문공연장 위상 강화

- 문화가 있는 날, 그랜드콘서트, 시즌공연 등 성격별 기획공연 추진
- 키즈 스테이지, 브랜드공연 등 새로운 유형의 기획공연 개발
- 공연장 전속 실내악단인 당진예당 챔버소사이어티 운영

● 사업 구성 체계

당진문화재단의 사업구성은 정책방향(사업)을 수립한 후, 각 정책사업 내에 영역(장르)별로 지원하는 단위사업을 수립하고, 그 단위사업 내에서 추진되는 세부사업을 수립하는 3단계의 구성체계로 되어있다. (정책사업 → 단위(영역)사업 → 세부사업) 정책사업의 대상은 시민과 예술가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시민대상 정책의 경우 예술활동지원과 예술향유지원을 설정하였다.

정책사업	단위(영역)사업	세부사업
시민문화 향유지원	기획공연 / 기획전시 / 문화정보서비스	12개
시민문화 활동지원	예술활동지원 / 예술교육지원 / 예술학교 프로그램	16개
문화예술 진흥지원	시각예술지원 / 공연예술지원 / 문학지원 / 문예활동지원 / 문화인력육성	20개
문화정책개발	문화정책연구	5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비고
시민문화 향유지원	기획공연	그랜드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시즌공연	
		브랜드 공연	
		키즈 스테이지	
		문예회관 연합회 방곡곡사업	국비공모
	기획 전시	찾아가는 문화선물	
		당진예당 챔버소사이어티 운영	
		기획전시	
		문화정보 서비스	
시민문화 활동지원	예술활동 지원	월간 프로그램 가이드 발간	
		당진문화소식지 발간	
		당진예술자료센터 운영	
		당진 문화동아리 주간사업	
	예술교육 지원	당진 문화동아리 활성화사업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	
		당진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시민문화네트워크사업	
		당진 인문학시즌사업	
		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	
문화예술 진흥지원	시각예술 지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비공모
		문화이모작사업	국비공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국비공모
		시민문예아카데미	
	공연예술 지원	예술강사아카데미	
		당진아트 콜로키움	
		예술영재아카데미	
		당진 문화예술 체험교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당진 올해의 작가전	
문학지원	당진 이시대의 작가전		
	기획초대전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전		
	당진미술사발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공연예술 지원사업		
문화인력 육성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국비공모	
	당진 이시대의 문학인 출판사업		
	문학선정작 출판기념회		
	대외협업 문예지원사업		
	당진문화진흥기금		
문화정책 개발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		
	생활문화활동가 육성사업		
	문화자원봉사자 육성프로그램		
	문화예술 무대연수사업		
문화정책 연구	예술단체 경영컨설팅	국비공모	
	문화정책포럼		
	당진문화정책 연구조사		
	당진문예연감		
	문화예술 모니터링		
	예술단체 사업설명회-간담회		



# 기획 *it*수다 '당진의원도심재생' -1부당진원도심의역사와재생운동

## 당진의 100년간직한 중심지

인구의 도시 집중은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외곽의 확장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관공서가 이전하고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었다. 이는 곧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켰다. 당진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원도심 재생 문제가 자연스레 대두됐다. 한편 원도심 재생의 성공적인 대안으로 '문화, 예술적 접근'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018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이 그것이다.

이에 올하는 <기획 it수다>를 통해 당진 원도심 재생에 관한 이모저모를 총 4부에 걸쳐 다룬다. 지면을 통해 당진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보고 당진 문화재단의 '당진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 글 실는 순서 1부 원도심의 역사와 재생 운동 2부 원도심의 문화와 당진시장 3부 원도심 사람들 4부 당진문화재단의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1960~70년대 추정, 당진구시가지 모습. 박기호 아미미술관장 제공

### 원도심 '쇠퇴'에서 다시 '재생'으로

#### 100여년을 지켜온 당진의 중심, 원도심

당진의 원도심은 당진 구군청사와 당진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일컫는다. 군청사가 지금의 신청사로 옮겨가기 전까지 이 일대는 오랫동안 행정을 비롯한 문화, 종교, 생활 등이 밀집해 있는 명실상부 '당진 시내'였다. 그렇다면 이곳은 얼마나 오랫동안 도시의 중심지였을까. 옛 문헌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일제말기에서 해방이후까지 당진면사무소가 자리했었다(〈당진읍지〉 참조). 이를 근거로 할 때 원도심의 역사는 100여년에 가깝다.

#### 당진시장도 시대의 변화 피하지 못해

당진 구군청사를 중심으로 한 상권과 더불어 원도심의 또다른 축은 바로 당진시장이다. 〈당진읍지〉에 따르면 이조시대에도 당진읍내장이 있었다고 한다. 27일 49일에 장이 열렸으며 대표적인 산물로는 물고기, 소금, 약쑥 등이 있었고 읍내장이 고을의 현 소재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당진시장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낙후된 장육, 복잡한 교통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더불어 점차 확장하는 상권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 이전이 추진되었다. 1973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오랜 세월 당진시의 중심 상권을 이뤘던 당진시장 역시 소비패턴변화와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쇠퇴를 피하지 못했다. 당진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그 추세는 더욱 더 가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장 상권이 위축되면서 시작된 당진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논란은 지역갈등 등으로 퍼지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어시장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단장했지만 여전히 시장 활성화는 해결되지 못한 지역 과제로 남아있다.

#### 2000년대 버스터미널 이전, '원도심' 단어 등장

오랜 세월 축적되어온 원도심의 역사에

반해 쇠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변화의 시작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2000년 12월 당진버스터미널 이전 부지가 원당지구로 확정 발표됐다. 그 무렵 당진지역의 도시기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행정기관의 이전문제가 대두된 것도 이 즈음이다. '원도심'이라는 용어가 지역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기존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당진군상공회와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공동주최로 당진을 원도심 활성화 방안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도심의 쇠퇴 원인으로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과 함께 신시가지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이 꼽혔다.

#### 2007년 군청사 이전 발표, 공동화 우려 가속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2007년 군청사를 대덕수정지구(지금의 신청사 자리)로 이전한다는 시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속화되었

다. 같은 해 가을 롯데마트 당진점의 입점 소식이 날아들면서 원도심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당진시장과 당진로터리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당진의 먹거리 상권도 이 무렵 대덕동 먹자골목에 내주게 되었다.

2011년 여름의 끝자락에 당진군청이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갔다. 군청사 이전에 앞서 가장 큰 화두는 군청사 활용이었다. 초창기 지역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가 싶었지만 그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당진세무서가 입주했으나 지난 2016년 계약만료로 이사를 나갔다. 현재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이 입주해있으며, 작년에 청년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군청 제2청사에는 현재 당진2동주민복지센터가 위치해 있다.

대중교통시설이 원도심을 떠난 이후, 행정기관, 지역상권이 그 뒤를 따랐다. 자연히 원도심의 이동인구가 줄었다. 이 무렵 당진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자 가장 오래된 극장이었던 당진시네마도 문을 닫았다.

#### 분산된 상권, 원도심 쇠퇴 가속화

2018년 현재, 당진시가지의 상권은 당진시청을 중심으로 한 대덕수정지구와 당진버

스터미널 인근, 우두지구, 당진로터리 주변 상권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지난해 연말 보도된 〈당진시대〉의 기사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당진 지역경제 침체가 10년 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과 가까운 당진의 지리적 여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역시 큰 상황이란 분석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수청지구, 수청1지구, 수청2지구 사업도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당진시대〉는 "지역 곳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상권의 이동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원도심 상권이 당진시청사 이전으로 당진문예의전당 중심으로, 대덕동 먹자골목으로, 당진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옮겨갔고, 최근에는 당진CGV를 중심으로 한 우두지구가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 때문에 원도심부터 당진버스터미널 인근까지의 상권은 빠른 속도로 쇠퇴했다(1183호 '장간24주년 특집 기획기사 발췌')고 보도했다.



# 사진으로 보는 원도심



2018. 2월 현재 당진구도심의 모습.



70-80년대 당진구도심의 모습. 사진 김형태 제공



80년대 추정. 한성아파트 뒷산에서 바라본 당진시가지 풍경. 사진 박기호 제공

# <국내외 사례 돌보기> 도시재생, 문화를 만나다

[편집자주] 당진문화재단은 그동안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과 문화’에 대해 다뤘었다. 2016년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은 1박2일 동안 대전 지역에서 진행됐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문화기획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대전 원도심을 돌아보며 원도심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2017년도에는 인천에서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두 곳 모두 도시재생을 문화로 풀어내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인천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과 배다리 문화마을을 돌아보고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차이나타운, 인천아트플랫폼 등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당진문화재단이 문화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찾았던 지역 외에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꼽히는 국내외 지역을 한 곳씩 소개한다.



일본 사례



청주 사례



## 국내 우수사례 지역 - 청주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 열쇠 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문화예술공연 열려

국내 도시 재생 성공 사례로 소개할 곳은 청주시 중앙동이다. 부산이나 대구, 전주 등 유명 대도시의 사례를 제쳐두고 청주시를 소개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청주시 중앙동의 도시 재생 사례가 지역 주민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도시 재생은 도시 재건축 혹은 재개발과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중앙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민협의체를 열고 직접 총독대 도시공학연구진을 찾아가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유지했다. 중앙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힘은 바로 주민 참여에 있다.

청주시 중앙동은 오랫동안 청주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당진과 마찬가지로 도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외곽에 조성된 신시가지로 그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결국 1980년대에 이후부터 서서히 중앙동은 인구 공동화 등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이때 주민과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추진위원회는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다시 찾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발로 뛰기 시작했다. 대학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고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과 마을에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그리하여 진행된 첫 사업은 ‘차 없는 거리 조성’이었다.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고 바닥 분수를 조성했다.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 경관도 새롭게 단장했다. 시설과 공간을 닦은 뒤에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목해 이야기를 만들었다. 청소년 광장과 공연장에서 예술문화 공연을 벌였다. 소나무길 프리마켓을 열고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매주 진행했다. 신예 작가들의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도시개발이란 미명아래 죽어가던 원도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매주 공연과 축제가 열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제 청주시 중앙동은 국내에서 명실상부 도시재생 성공 사례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 해외 우수사례 지역 - 일본 가나자와시

###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유희 공간, 역사문화자원 활용해 문화예술 공간 조성

인구 약 46만 명의 가나자와시는 문화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다.

1960년대 일본 전역에서 시작된 경제성장 중심의 도시화는 전통 문화 쇠퇴현상을 불러왔다. 이때 일본 가나자와시는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경관을 보존하는 재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지정되기도 했다. 산업시대에 남겨진 유희 공간 및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시민예술촌과 21세기 미술관을 거점으로 삼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썼다. 시민예술촌은 시민 중심의 생활 문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1세기 미술관은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북일보는 보도를 통해 “(가나자와시는) 우선 전통 공예 사업을 살리기 위해 문화 행사와 문화재 보존을 추진했고 이후 새로운 문화와의 결합을 통한 전통 문화의 발전을 위해 1989년 우타초야마 공예공방을 시작으로 이를 수행할 문화기관들을 건립했다. 예술에 투자해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1996년 폐쇄된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해 시민예술촌을 세웠다. 2004년에는 전통예술과 현대

## >> 당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2020년까지 60억원 투입, 도시재생사업 실시

#### 당진1동 권역, 최우선사업 시행 중심통화로 개선,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 예정

지역 내 원도심 재생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2020년까지 약 6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7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지난해 사업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4년 간 약 6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씩 투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진시 역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원도심의 상권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구군청, 구경

찰서, 구교육청, 구터미널 등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해가며 원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쇠퇴가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이 중 원도심이 포함된 당진1동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1위로 선정되었다. 당진1동 구군청사 일원은 신·구도심의 동행, 상생 그리고 회복,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격차해소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지역에 특히 중심통화로 개선과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이 원도심 내에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합덕공용버스터미널 일원, 면천면사무소 일원, 송악읍사무소 일원, 당진2동 주민센터 일원, 신평면 거산리 일원, 아산국가단지 일원 등도 그에 걸맞는 기본방향과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의 융합을 지향하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술관을 건립했다”고 전했다.

글우현선

## 전문가 인터뷰 |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대표

# 원도심 매력 살리는 문화적 접근 필요

Q. 전국적으로 구도심,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을 놓고 볼 때, 구도심 재개발의 의미와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나?

A. 어느 도시나 도심이 확장되고 발전하게 되면 원도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심의 이동은 행정, 경제, 교육 등의 이동을 수반하게 되고, 기존의 도심은 쇠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가 새로이 신도심을 형성한다고 해서 낡은 도시를 버리고 일상의 모든 삶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 원도심 나름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정책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근본 이유다.

또한 원도심은 태생적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적 자원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다. 도심의 확장으로 인해 중심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을 지 모르지만, 도시의 추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낡은 것이라고 무조건 밀어버리고 새로이 건설한다면 그 도시는 역사와 문화가 없는 빌딩숲에 불과할 것이다.

Q. 구도심 재개발에 있어 지자체와 시민들이 우선시해야 할 점, 염두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겠나.

A. 최근엔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추진되

고 있다. 도시 확장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중심축이 되어버린 신도심과 똑같은 개발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도심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경제적 활성화로만 보는 경향이 많다. 경제와 자본의 중심축이 이동한 상황에서 기존에 경제 활성화만을 바라본다면 실패하기 쉽다. 도시의 오래된 가치와 삶을 존중하고, 지속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구도심 재생과 관련해 국내외에 참고할 사

례는 어떤 곳이 있나.

A. 도시의 규모와 역사문화 자원에 따라 참고 사례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구, 부산, 군산, 인천 등은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대표 사례다. 국가지원을 통한 대규모의 원도심 재생이 추진되었다. 대전은 2003년 전국에서 최초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소극장지원사업과 문화단체 임대료 지원사업 등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재생이 추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재생 사례로는 경남 마산 창동 문화예술의 거리도 참고할 만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입주시키면서 원도심이 생기를 되찾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Q. 원도심 재생에 관해 한마디.

A. 도시재생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재생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적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면 일방적 건설과 무엇이 다를까? 여러 벽화마을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더디지만 지역민들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찾아가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커닝은 하되 그대로 베끼지는 말았으면 한다. 이미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 그 가운데서 방법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살려내지 못하는 베끼기 일변도의 도시재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아이디어가 있고 답이 있는 법이니 지역민들과 수없이 만나는 원탁테이블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술인 칼럼

#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이병수  
순천미술관장

오래전 읽었던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를 개략하며 문화소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독자와 함께 공유해보는 것으로 본 칼럼의 줄거리를 타협했으면 한다.

그는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소비'에 주목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필수품이 아닌 일종의 사치품에 가까웠다. 상품이 본질적으로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서 구성되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풍기는 분위기, 즉 기호로 인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같은 음료수가 있다 하더라도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것은 코카콜라가 더 맛있어서라기 보다는 그 기호를 산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 보드리야르는 기호화 되는 사회를 주목했으며 소비는 하나의 사회적 언어가 된다.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것. 그것이 장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핵심이다. 사회가 소비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기호(이미지)다. 기호는 사회를 장악한다.

그렇다면 이미지는 왜 만들어지는 걸까? 이미지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나를 만든다.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쉬운 표현으로 상상속의 공주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소중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다. 그런 특별한 공간을(차이) 데려다 줄

수 있는 물건에 욕구가 생긴다. 물건을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가치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품으로 가능한 사회적 이미지, 기호를 소비함으로써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가 말하는 핵심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집고 넘어간다면,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누구나 생필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사람은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닌 나의 사회적 이미지를 격상시켜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특별한 것은-사치품-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소유여부로 인한 차별이 생기고 사람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물질적인 풍요 즉 풍부함은 이런 방식

으로 차별과 연관성을 가진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풍요로운 소비는 새로운 마케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끊임없는 기호(브랜드)를 창조하며 소비하는 개인을 줄 세우고(차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현상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진 것이 경쟁이다. 이는 물론 여타의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하며 보다 진화된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다. 좀 더 문명화된 인간에게 있어서 경쟁은 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를 만드는 욕구로 발전하고 있다. 기호(브랜드)에 의해 소수화 된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유지되던 차이가 현대사회에서 점점 보편화됨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차이의 문제를 궁극으로 맞이하고 있다. 이 궁극의 대안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다. 음악회를 다녀오고, 전시장을 둘러본다든가, 연극, 스포츠, 여행등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이 유가 이런 사회적 현상과 같이한다.

문제는 속도가. 참여와 관심으로 상대적 차이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지방정부마다 공연장과 전시장 만들기에 전력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전 모든 문화적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새로운 차이를 만드는 사회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화에 행정조직들은 문화재단의 설립으로 그 전문성에 귀를 같이하려하는 데에 긍정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다만 재단 조직의 분열 세분화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우려하는데 동조하는 분위기다. 좀 더 문화적 기반을 확장하고 건전한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 정부의 문화관계 기관과 제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의 의미를 삼고 싶다.

## 지역문화예술발전소 - 문화재단

문화가 산책



장석기  
예술경영학PhD, 세한대학교수

문화예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정책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어 지느냐는 지역시민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문화예술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갖게 된다.

개성 있는 지역문화예술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지역의 문화 예술적 독창성 보다는 특징과 차별성이 없고 획일화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지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의 고취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에 기여한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다. 창조적인 지역 문화예술은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시민을 육성한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은 시민들의 창작지원, 발굴, 진흥 및 홍보를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다. 다양성 속에 창의적인 지역문화를 가꾸어 가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지역문화는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자선이 지역문화 형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문화재단을 통해 도시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꾸미는 일은 하나의 트렌드로서 확대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효용성과 가치가 개인의 삶과 집단의 공동체에서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과 환경, 생태까지 문화재단의 역할은 확

대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독립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경영성과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주민의 문화적 감성과 안목을 높여 행복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업을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경영과 문화예술행정의 가치 추구를 위한 노력과 실행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을 실천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기관으로서 예술문화지원, 예술가 창작 활성화, 시민행복감 제고로 그 역할을 해

야 한다.

지역문화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투입형 조직에서 창의적 문화도시를 지향 하는 전략 개발형 조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문화 예술단체와 지역문화재단과의 유기적 역할은 지역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문화예술의 창작과정은 우리들의 일생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현재진행형이다. 완성을 향해 그 길을 찾아가는 미완성의 과정이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혼을 불태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이다.

문화재단의 예술경영은 To The Arts 예술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For The Arts 즉 예술을 위한 경영이 되어야 한다.

맛있는 쿠키도 만들고 신나는 매직쇼도 즐기자!  
쿠킹매직쇼!!

2018. 4. 7. SAT 11:00 (10시 체험시작) / 14:00 (13시 체험시작)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오.감.만.족

말랑말랑한 쿠키 반죽을 만들고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마술공연을 보고 내가 만든 쿠키를 먹어보고 신기한 마술을 배워보는 쿠키처럼 달콤~한 체험 매직컬!

1 2008년 요.술.사 시즌1 부터 끊임없는 사랑!  
10년간 대학로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체험 매지컬 검증완료 명품공연 <요리하는 마술사>

2 단순 관람 NO! 참여하면서 소통하는 체험공연!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쿠키! 쿠키가 익어가는 향긋한 냄새와 함께 공연을 보아요. "저요! 저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공연

## 만나고 싶습니다 | 문화회원 홍경미 씨



## “서울에서나볼수있던공연을당진에서한다니!”

6년 전 이사 온 당진, 몰라보게 달라진 공연 문화  
“시민들의 공연 에티켓은 여전히 아쉬워, 교육도 필요”

홍경미 씨가 연구도 없는 당진에서 살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우연의 시간이 6년째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 운명인 것도 같다.

“서울, 경기도 살면서도 늘 시골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인을 따라 처음 당진에 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무작정 당진으로 이사를 왔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남았어요.”

농가 주택을 개조해서 살기 시작한 당진 생활은 대만족이었다. 집 앞에 펼쳐진 논과 밭이 모두 내 정원처럼 아름다웠다. 자연 속에 산다는 게 행복했다. 특히나 ‘새댁~’ 하고 찾아 와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덕분에 낯선 타지 생활이 외롭지 않았다.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는 반상회날도 마을 잔치 같았거든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달까요. 이사 오기 참 잘 했다 싶어요.”

헌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문화생활을 누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였다.

“처음에는 영화 하나를 보려고 해도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로 나가곤 했어요. 음악회나 공연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1년 가까이 다른 도시를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진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 공연 소식이 들려왔다. 그때가 바로 정확히 당진문화재단이 창립한 해다.

“이사 와서 딱 1년 좀 지났을 때였어요. 당진에서 볼 수 없었던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진문의예전당 문화회원으로 가입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다녔죠. 아마 거의 모든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홍경미 씨는 “특히 서울 대학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극 <라이어>가 당진에서 공연한다는 사실이 기뻐다”며 “홍보대사처럼 저렴한 가격에 <라이어>를 당진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홍보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만 볼 수 있는 대규모 공연이 당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걸 볼 때마다 당진시민으로 뿌듯한 기분까지 들게 됐다. 홍 씨는 “연말이면 해외 유명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동네에서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며 “<당진연극제>도 패키지예매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연극무대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홍 씨가 애정하는 무대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다.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지는 무대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연주자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보니 함께 호흡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집중도도 높아지고요. 외국의 전통음악부터 생소한 악기 연주까지 흔히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면도 참 좋아요.”

홍경미 씨는 “이런 이색적인 공연들이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다양한 모습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놀랄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공연 문화와 이에 대한 관리나 교육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초창기부터 당진문의예전당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공연의 질과 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해 관객들의 공연 에티켓은 여전히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공연 관

람 연령이 안 되는 어린 자녀를 동반하거나 공연 도중에 끊임없이 공연 정보를 설명해주는 일부 부모들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불쾌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공연 도중에 입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홍경미 씨는 “당진문화재단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연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좀 더 타이트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우현선



문화재단人 | 이지원 문화사업팀장

# “지역특색을 담은 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대규모 공연 만들고 싶어”



소도시의 경우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 많지 않아요. 전당을 대표할 만한 오페라나 뮤지컬 등 지역특색을 담은 콘텐츠로 지역예술인과 경쟁력 있는 대규모 공연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역량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웨이(미국 뉴욕)와 웨스트엔드(영국 런던) 극장의 공연이 유명한 것은 엄청 큰 규모의 극장이라서기 보다 하나의 작품을 조금씩 보완해 지속적인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당진에도 전당에만 와야 볼 수 있는 콘텐츠 있는 특색공연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당진만의 특색 공연이 없다면 수십 년 미래에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공연과 함께 시작하는 설레는 봄어때요?

**[당진시민의 문화 감수성은?] 당진 시민의 문화적 특징과 감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는지도 물었다. 그러자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는 즉답이 돌아왔다. 공연장 객석점유율이 해마다 90%를 넘는데 이는 타 공연장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란다. 당진 시민들은 공연에 많은 애정이 있고 즐기는 장르도 다양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다만 전 시 중 시각예술분야의 관심이 적어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대해도 좋은 공연은?] 올해로 재단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공연사업은 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 첫째 모든 공연의 기획과 섭외를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시즌공연, 그랜드 공연, 문화가있는날 등 공연을 분야별로 선보이고, 시민홍보에 주력했다. 덕분에 공연 횟수도 늘고 객석점유율도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관객 수가 늘자 표 판매 수입도 늘고 공연의 질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벌이는 사업중 기대해도 좋을만한 사업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키즈스테이지’와 ‘브랜드공연’은 꼭 주목해 달라고 했다. ‘키즈스테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획공연이다. ‘브랜드공연’은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영상공연으로 추진된다. 문화동아리의 공연무대를 지원하는 당진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연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동아리 기획공연은 소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자체 제작 공연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전당 이름의 자체 제작한 공연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 시키는 일입니다. 체계적이면서 일반인이 선호하는 장르를 선택해 참여그룹, 대상별, 관객별로 구분해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해 <아이산>을 제작 연출하기도 했지만 군

글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사진 박효경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처음 그를 보는 사람이라면 심중팔구 가장 먼저 그의 머리에 눈길을 보낸다. 드라마 <베르벤 바이러스>의 감마에 머리스타일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 하는 곱슬곱슬 긴 머리스타일이다. 물론 그의 머리는 자연산이다.

그가 주는 첫 인상은 곱슬머리와 함께 사람 좋은 낙실웃음으로 각인된다. 아쉽게도 얼마 전 머리카락을 깎둑 잘라 그의 풍자머리를 볼 수 없게 됐다.

우리 재단의 핵심부서로 꼽히는 문화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이지원(48세) 팀장 얘기다.

인구 20만의 도시, 오페라 극장에 하루 1000명의 직원상주

**[문화의 눈으로 본 독일과 한국] 그는 성악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1998년 대학 졸업 후 바로 뉴욕으로 건너가 브루클린 컨서베이터리 오브 뮤직(Brooklyn Conservatory of Music) 프로페셔널 과정을 공부했다. 1년 뒤인 이듬해 독일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했다. 이주하자마자 독일 담슈타트 국립 오페라 극장(Staatstheater Darmstadt)에 상임단원으로 합격, 2011년까지 무려 13년간 단원으로 활동했다.**

“독일에서 관련 대학을 공부하지 않고 국립 오페라극장에 바로 합격한 사례는 드문경우예요. 운이 좋았죠.(웃음)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며 독일 트로싱엔(Trossingen) 국립음대 예술학과 대학원 과정을 수학했어요. 또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라보라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게임베하(ABORA International Management GmbH (in GERMANY))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했고요. 유럽현지 굴지의 연주회에서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단체의 공연을 수신회 유치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한 그의 눈에 비친 문화로 본 독일과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독일의 ‘담슈타트 국립오페라극장’은 1,000석의 객석을 갖고 있어 규모면에서는 당진문화의전당(이하 전당)과 차이가 없는 듯 느껴질 수 있어요. 극장의 소재지인 담슈타트(Darmstadt)라는 도시는 세계적인 현대음악제로 매우 유명하기는 하나, 인구 20만 명 남짓한 아담한 도시예요. ‘당진문화의전당’과 ‘담슈타트 국립오페라극장’ 둘 다 전문공연장으로 건립됐어요. ‘문화의전당’의 경우 공연회수와 총 관객수는 한국의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담슈타트극장의 대공연장에서는 일 년에 250회 이상의 공연이 열려요.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 그리고 300석 규모의 실험극장을 포함하면 연 600회 이상의 공연이 개최되는 셈이죠. 공연의 90퍼센트 이상이 자체 제작공연이고, 매 공연마다 객석은 거의 만석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된 차이점으로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그는 독일이 부자국가라 문화에 대한 투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실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이 오페라극장(Alte Oper)이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닌 문화복지에 대한 높은 인식이 투자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담슈타트에 있는 국립오페라극장에는 500명에 이르는 상근직원들이 있어요. 오페라 가수, 오케스트라 단원, 연출가, 지휘자, 무대소품을 만드는 사람, 무대세트를 제작하는 사람, 의상을 만드는 사람, 사무를 보는 사람, 심지어는 미용실과 인쇄소까지 극장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인구 20만의 도시에서 상근자 500명, 비상근 예술가 및 일용직을 포함하면 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매일 공연장에 상주합니다. 그리고 그들

은 모두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불러요. 대공연장의 무대는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보다 넓고, 무대시설과 장비 또한 우리나라의 그 어느 극장도 비교 대상이 안됩니다.”

당진의 첫인상 “양적 성장에 놀라”

**[재단과의 인연] 독일에서 일하는 동안 그가 올렸던 공연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등 다양하다. 그중 헨델의 <알치나> 같은 고전작품들이 기억에 남는다. 12작품 정도를 해마다 새로 올려야 하는데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연출자가 매번 교체된다. 게다가 10작품 이상 투입되어 작품을 준비하다보니 연출수입이 저절로 됐다. 연출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무대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 공연을 하면 할수록 내 작은 실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모를 땀 용감하게 달려들었는데 횡수를 더할수록 부담감이 올라왔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긴장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필자 또한 14년 동안 일하던 직장을 뒤로하고 새로운 분야인 ‘당진문화재단’에서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는 터라 어떤 심정일지 충분히 공감아 됐다. 그는 2011년 7월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가 새롭게 동지를 튼 곳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다. 2014년 8월까지 그곳에서 기획전문위원으로 일했다. 공연장 중심 재단이다 보니 주로 오케스트라 등 공연과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3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2015년 1월 당진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입사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는 당진에 처음 왔을 때 인구 17만의 도시에 1001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소공연장, 야외공연장과 단독

전시관까지 갖춘 전당 규모에 놀랐다.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양적인 면에서 타도시가 범접하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한 당진을 보고 놀랐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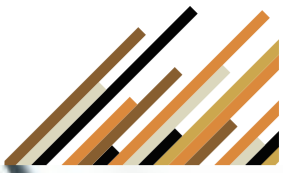
“지역예술인과 자체 공연작품 만들고 싶어요”

**[올해 기대해도 좋은 공연은?] 올해로 재단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공연사업은 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 첫째 모든 공연의 기획과 섭외를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시즌공연, 그랜드 공연, 문화가있는날 등 공연을 분야별로 선보이고, 시민홍보에 주력했다. 덕분에 공연 횟수도 늘고 객석점유율도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관객 수가 늘자 표 판매 수입도 늘고 공연의 질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벌이는 사업중 기대해도 좋을만한 사업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키즈스테이지’와 ‘브랜드공연’은 꼭 주목해 달라고 했다. ‘키즈스테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획공연이다. ‘브랜드공연’은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영상공연으로 추진된다. 문화동아리의 공연무대를 지원하는 당진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연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동아리 기획공연은 소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자체 제작 공연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전당 이름의 자체 제작한 공연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 시키는 일입니다. 체계적이면서 일반인이 선호하는 장르를 선택해 참여그룹, 대상별, 관객별로 구분해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해 <아이산>을 제작 연출하기도 했지만 군



이야기가 있는 당진 마을 여행 3 - 면천면 원동리



# 당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마을

추위도 너무 춥다. 아파트에 살면서 세탁기가 얼어붙긴 처음이다. 밖은 위험해! 겨울잠이라도 자야 하나. 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거야. 겨울잠 살친 다람쥐처럼 투덜투덜. 그러다 우연히 봄 향기를 맡았다. 엘리베이터에 탄 한 아이의 손에 들린 노란 꽃다발에서. 그날은 집 앞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다. 프리지어였다. 졸업식 꽃다발의 대명사. 이름만으로도 '봄'이 떠오르는 향기, 프리지어.

생각해보니 당진에도 프리지어 재배지가 있다. 마을의 절반이 저수지이고 나머지 절반이 야트막한 산이 차지하고 있는 마을. 산고랑 사이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농가가 마을을 이룬 곳. 어족이 맛있는 집이 있는 마을. 면천면 원동리다. 원동리는 당진에서도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이다. 노란 프리지어가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원동리는 당진에서 가장 먼저 프리지어 농사가 시작된 마을이기도 하다.

## “프리지어체험으로봄만끽해보세요”

### 호수,야트막한산,옹기종기모여앉은농가

봄의 전령, 프리지어 꽃밭에서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그다음날, 면천 원동리로 향했다. 원동리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김

경태 씨의 프리지어 농장이다. 절기의 이치인가. 잠시 집을 비운 주인네를 기다리는데, 마당에 부는 바람이 제법 따뜻하다.

김경태 씨는 2009년 프리지어를 처음 심었다. 파리고추에 비해 연료비가 적게 드는 저온성 작물. 프리지어 농사를 시작한 이유다. 그 후 프리지어 재배 농가가 차츰 늘어나 지금은 당진이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지어 생산지역이 되었다. 약 2ha 규모의 면적에서 프리지어가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경기와 청탁금지법, 엔저 현상 등 악재가 겹쳐 화훼 시장이 위축되면서 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는 불경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몇 년 전부터 프리지어 수확체험을 시작했다. 간혹 진정에 들 때마다 꽃 수확을 돕던 딸의 권유였다. 반신반의

로 시작한 체험행사는 의외의 성황을 이뤘다. 봄은 커녕 눈이 하얗게 내리는 새해 첫 달부터 수확체험 시기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해 농장을 찾았던 사람들의 전화였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

하우스로 들어서자 훈훈한 기온과 함께 꽃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끈게 뻗은 초록 줄기들 끝에 드문드문 노란 꽃망울이 비친다. 아직 꽃시장에 출하되는 탓이다. 수확체험이 시작되는 3월 초에는 활짝 핀 꽃들이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다.



1. 면천 원동리 원양농장에 곱게 핀 프리지어.  
2. 당진풍란농장에 피어난 난꽃  
3,4. 프리지어 수확 체험을 하고 있는 체험객들.





당진풍란농장에서 난을 돌보는 서민원대표

“일하시면서 내내 꽃을 보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일하는 주변을 서성이가가 민망해 던진 말. 안주인은 그저 빙그레 웃어 보인다. 농촌에서 겨울은 농한기. 이듬해 농사를 준비하며 쉬는 한겨울에도 실 새 없는 농사가 꽃농사다. 철없는 소리였다.

**마을의 절반이 산과 호수**

프리지어 꽃밭, 맞은편에도 꽃 농장이 있다. 프리지어가 싱그러운 소녀를 닮았다면, 원숙한 여인을 닮은 꽃, 난을 키우는 농장이다. 당진 풍란농장에서는 난 중에서도 풍란과 석곡을 재배한다. 서민원 대표는 20년째 꽃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풍란은 7, 8월 중에 한번 꽃을 피우지만 품종개발으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다.

원동리에는 프리지어 농장이 두 곳, 난 농장이 한 곳이다. 이밖에도 대계가 파리고추, 마늘, 생강 같은 소규모 밭농가다. 앞서 말했듯, 마을의 절반이 저수지이고 산고랑마다 농가가 들

어선 탓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적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원동리는 산고랑 사이사이 자리 잡은 네 개 부락이 합쳐진 마을이다. 장뜰, 원양골, 골말, 동미가 고랑마다 예부터 내려오는 이름이다. 최근에는 면천저수지 조망으로 전원주택이 여러 채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다소 늘어나기도 했다.

**전원적인 풍경 감상 후 빼놓을 수 없는 맛, 어죽**

원동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면천저수지다. 한가로이 노니는 물오리 떼, 야트막한 산 아래 웅기종기 모여 앉은 농가. 해질녘이면 호수를 물들이는 노을. 저수지 주변을 둘러싼 풍경 모두, 우리가 시골 여행에서 기대하는 것들이다. 농번기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바쁜 농부의 모습은 한걸음만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다. 그 배경이 자연이기 때문이다. 원동리의 전원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지는 단연 면천저수지다. 저수지 한편에 수변 데크와 정자,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다. 면천저수지는 민물낙시꾼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소이기도 하다.

저수지의 풍경도 그만이지만, 진짜 유명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민물고기를 넣고 만든 어죽이다. 민물고기를 갈아 만든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국수를 말아 내놓는 면천가든 어죽은 면천저수지 인근에서 가장 유명하다.

**면천읍성 주변도 걸어보길**

원동리를 한 바퀴 돌고, 속까지 든든히 채웠다면 면천을 떠나기 전에 들려볼 곳이 있다. 사실 면천은 당진에서도 자연과 역사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히 가볼만한 곳도 많다. 면천읍성 일원은 봄이면 진달래, 벚

꽃이 피어난다. 봄철 걷기 좋은 길이다. 최근 복원사업을 시작해 2020년 완공을 앞둔 면천읍성을 비롯해 영랑효공원, 구 면천초 천년 넘은 은행나무, 연암 박지원이 만들었다는 골정지가 모두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골 마을에서 만나는 작은미술관이 반갑다. 김회영 관장이 지난해 겨울 문을 연 면천읍성안그미술관이다. 3월부터는 봄을 주제로 한 한국화 전시인 <인연-동행>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봄 여행 코스로도 그만이겠다.

글, 사진 우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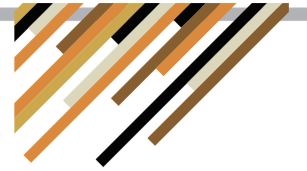
△원양농장 프리지어 수확체험: 문의 010-3450-8777  
 △당진풍란농장: 구입 문의 010-3428-3559  
 △면천가든: 민물매운탕, 어죽 판매 / 041-356-3572  
 △면천읍성안그미술관  
 : 면천면 동문1길 21 / 월요일 휴무 / 10시30분~18시 / 무료



5. 연암박지원이 지었다는 골정지의 건곤일초정 6. 면천읍성안그미술관. 7. 면천저수지와 원동리 마을 전경. 8, 9. 면천저수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데크 10. 복원이 한창 진행 중인 면천읍성 성곽.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직장인밴드 SPR



# “올해부터 연합팀 꾸려 더 강력해진 모습 기대”

### 17년 밴드의 장수 비결은 ‘가족 같은 분위기’ 10년 째 정기콘서트, 다양한 지역 축제 참여

직장인밴드 SPR이 올해부터 연합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1기와 2기가 함께 연합밴드를 꾸린 만큼 사운드를 비롯해 실력이 좀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 밴드 멤버들의 한목소리다.

“기수별로 최고의 멤버들만 모였으니 기존의 사운드보다 조화롭고, 음향 면에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결속력만큼은 어떤 밴드 못지않으니 새로운 연합팀 활동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직장인밴드 SPR은 명실상부 당진지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밴드다. 17년 전 함께 밴드를 시작한 1기 멤버가 변함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 결속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SPR은 10년 째 합덕 소동공원에서 정기콘서트를 연다. 초가를 저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콘서트에서는 SPR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 선곡의 장르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은 물론, 지역 다른 문화예술 동호회를 초청해 풍성한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다.

꾸준한 단독 콘서트 외에도 버그네오회 문화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초청공연이나 당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당진 생활문화예술제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SPR 1기로 지난해까지 회장을 맡았던 김석준 씨는 “오랜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가족과 자신의 일이 취미생활인 밴드활동보다 먼저라는 철칙 때문이었다”며 “그 덕분에 멤버들의 가족들도 밴드 활동을 적극 지지해줬고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PR 멤버들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 가족처럼 마음이 잘 통하니 멤버들이 즐겁고, 음악을 하는 이가 즐거우니 자연히 듣는 이들도 즐겁다. SPR이 지역에서 장수 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광연(기타, 40) 씨는 “직장인밴드는 멤버들마다 각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헌신하지 않으면 오래 가기가 어려운데 우리밴드는 그런 점에서 단합이 잘 되는 것 같다”며 “멤버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삶의 활력도 생기고 즐거움



도 느낀다”고 말했다. SPR은 70-80년대 대학가요제를 통해 불붙은 밴드들의 음악을 주로 다룬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락, 메탈을 비롯해 연합팀을 꾸린 만큼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첫 무대로 계획되어 있는 당진생활문화예술제에서 선보일 곡으로 <배반의 장미>, <Still Loving You> 등을 연습 중이다. 박서준 회장은 “첫 연합팀으로 선보이

는 무대인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곡 선정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며 “지역민들 중에 음악을 사랑하고 SPR과 함께 하고픈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SPR은 Spare Part Room 즉, 부속실의 약자다. 처음 밴드를 결성해 연습을 시작한 윤석준 씨의 카센터 부속실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지금

의 SPR을 만들었다. SPR은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지하 연습실에서 일주일에 한번 함께 모여 연습을 하고 있다. △SPR 멤버: 보컬 이성주, 김세인(사무국장) 운영 필/기타 윤석준(고문), 조영동, 이광연/베이스 노창열, 박서준(회장) /드럼 조규정, 유봉원/키보드 이노을 △밴드문의: 011-432-8475(회장박서준)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원당통기타클럽

# “동호회 활동으로 통기타 실력도, 즐거움도 UP!”

### 매년 전국통기타페스티벌 당진에서 주최



유난히 한파가 거센 지난 겨울의 끝자락에 원당통기타클럽 회원들을 만났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튕기는 기타 소리는 겨울의 추위가 무색할 만큼 따뜻했다.

원당통기타클럽은 통기타강사로 활동하는 박기성 회원을 필두로 지역에서 마음 맞는 이들이 모여 만든 통기타 연주 동호회다. 원당통기타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 2013년도지만 회원들 중에는 이미 그 전부터 지역의 통기타동호회에서 실력을 쌓아온 베테랑들이 여럿이다. 실력자들이 초보자들을 끌어준 덕분일까, 통기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덕분일까. 원당통기타클럽은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많다. 매년 참여하고 있는 당진문화재단의 동아리주간 외에 올하는 통기타 제조회사 콜

트에서 주최하는 공연에도 초청을 받았다. 특히 매년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전국통기타페스티벌은 원당통기타클럽이 직접 주최하고 진행하고 있다.

김석규 회장은 “우리 원당통기타클럽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무대를 통해 성취감도 높아지고 통기타 실력도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

했다. 김석규 회장은 아내의 권유로 정년퇴직 후 통기타를 시작했다. 그는 “집에서도 매일 한두시간씩 연습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무대에도 설 수 있으니 무료로 감상인 퇴직 후 생활에 활력이 된다”며 “퇴직 후 여가 생활로 통기타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당통기타클럽 회원들은 통기타를 시작한 지 3-4년 된 연주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통기타 실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순복(주부, 58) 회원은 지역의 문화센터와 당진문화예술학교 등을 오가며 통기타를 배웠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경, 원당통기타클럽을 알게 됐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통기타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어요. 통기타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이 높다보니 자연스레 모두가 열심히 연습하는 분위기에요. 그 덕분에 저도 더 많이 연습하게 되고 실력도 늘었다고 생각해요.”

총무를 맡고 있는 정교숙(농촌형민박운영, 57) 회원 역시 “학원이나 문화강좌와 달리 회원들끼리 서로 부담 없이 배우고 알려줄 수 있어서 오히려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민박에서 여러 사람들과 기타 치며 노래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기타를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자(주부, 45) 회원도 “처음에 다른 곳에서 6개월 정도 기타를 배웠을 땐 크게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타가 재미있어졌다”며 “회원들 간에도 배울 게 많고 서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이 같은 공통된 생각에 대해 박기성 회장은 “동호회 활동을 하다보면 으레 본연의 목적보다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에 비중을 더 두는 경우가 있는데 원당통기타클럽은 그야말로 통기타 연주에 집중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원들 중에서도 실력자인 최혜정(학원 운영, 50) 씨는 “회원들마다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타를 함께 치면서 생활이 즐겁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기타를 친 지 7년쯤 됐는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당통기타클럽은 매주 수요일마다 원당동에 자리한 연습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통기타를 함께 배우고 연주하고픈 시민들을 위해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초보자도 환영이란다. 동호회 활동 문의는 회장 김석규(010-2477-5375) 씨에게 연락하면 된다.

△원당통기타클럽 회원명단: 회장 김석규/총무 정교숙/회원 박기성, 김순복, 이민자, 최혜정, 윤용숙, 임덕래



## 문화유산으로 보는 당진 - 3 당진 농악과 지신밟기

# ‘솔피풍물패’ 중단된 이유는?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당진문화는 어디에서 시작돼 어떤 과정을 거친 걸까요? (당진문화재단 소식지)가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 나섭니다. 새로 쓰는 당진문화유산사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말 당진문화재단이 발행한 『한권으로 읽는 당진문화유산』(필진: 김추운, 신양웅, 윤성의, 이인화 사진: 최영근)이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발췌·정리해 당진문화의 정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요약과정에서 원문의 내용을 읽기 쉽게 일부 임의 수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당진 농악과 지신밟기'입니다.

- 제1회매항비(埋香碑) - 제2회안섬풍어당굿놀이(충남무형문화재 35호) - 제3회당진농악과지신밟기

### 풍물의 기원과 당진의 농악

풍물은 농악을 가리키는 말로 사물을 치는 것을 '풍물 친다'라고 부른다. 풍물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잉태된 것으로 그 형식은 각종 제의와 전투행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풍물의 시원은 뚜렷이 없다.

풍물에 쓰이는 악기는 타악기인 팽과리·징·장구·북·소고와 관악기인 호적·나팔이 있다. 악기는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경기북부는 바를 쓰며 영동지역은 소고를, 영남지역은 팽각이 쓰이기도 한다. 풍물은 팽과리가 주가 된다.

풍물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적 놀이로, 집단의식에서 싹튼 예능양식으로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발달한 문화의 한 형식이다.

그리고 풍악에는 신명(神明)이 있다. 풍물의 악기는 원래 신을 부르는 악기였고 잡귀를 몰아내는 악기였기에,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주술 음악적 기능을 가졌다. 춤을 통해 소외된 존재의 고독과 고통을 풀어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데서 신명은 나온다. 풍물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염원을 결집하는 진취적인 행위, 신명으로 고통을 극복

하는 재생과 생존의 예능이라 할 수 있다.

서민계층에서 자라온 풍물은 비록 고상하고 우아한 놀이는 아니지만, 흠냄새가 물씬 나고 소박하며, 천재(天災)와의 싸움에 뛰어드는 농민들의 힘찬 의지와 패기가 넘쳐흐르고 있다. 줄기차게 일해야 하는 생산자에게는 힘이란 제일 고귀한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주고 반복되는 고된 노동에 흥을 불어넣어 피로를 잊게 함으로써 일에 의욕을 북돋아 주던 것이 바로 농악이다.

### 마을 청년들이 만든 '솔피풍물패'

솔피 풍물패는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고 한다. 마을에는 모아놓은 자금이 없었다. 당시 비석굴 산적밭 조그마한 오두막살이 방이 풍물 만드는 공장이었다. 팽과리, 서랍, 징 등은 만들 수 없으나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 범구, 돌모, 의상, 짚신, 기타 장비를 직접 만들었다. 깎고, 꿰매고, 짜서 범구도 돌모도 만들었다. 장구, 북은 가죽과 원통을 사서 끈으로 졸라매었다. 약 한 달이 걸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추석 무

렵에 풍물연습이 시작되었다.

내용을 엮어보면 가난한 신혼부부가 한 집에서 내외머슴으로 사는데 주인 부자가 젊은 부인과 사랑을 하여 일어나는 익살스럽고 비판적 극 장면이었다. 그러한 일은 1940년대 중엽의 사회 구조로 보아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고 3년째에는 직접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중단되고 말았다.

### 일제강점기, 새마을운동에서도 살아남아

우리의 삶과 같이 해운 두레는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풍물의 역사를 간단한 도식형태로 표현하면 「축원형태+노작형태⇒결립형태(사당패)⇒연희형태」이다. 이처럼 통시적인 분류가 가능하나 각각의 형태가 어울려 공식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축원형태와 노작형태를 시간 순으로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풍물의 발생에 있어 생산성에 중점을 두느냐, 종교적 의식에 두느냐에 따라 선후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종교의식은 생산의 풍요를 위한 의식이었고 문화의 생

산성, 의식성이 엄밀히 구별될 만큼 분화된 사회가 아니었다.

유교사상에 젖은 양반들(사대부)에 의해서 전래 민속극은 멸시를 받았으며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이양법의 도입과 농사기술의 발달과 두레(마을공동체 노동조직)에 의해서 민속극이 흥을 돋우며 고통을 즐거움으로 전환시켰고 노동의 능률을 올렸다.

마을 두레 공동체에서 통합과 단결력을 강화함으로써 두레패 연희와 풍물은 발전하였다.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여러 기량을 선보이며 판굿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19세기말 마을에서 노동으로부터 분리되며 기량이 뛰어난 풍물패들이 담고 있는 생산계급 문화 내용은 상실되었다. 두레 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함께 풍물 역시 민족적인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한 민족의 뿌리 깊은 문화였기 때문에 '낭비적인 것', '미신적인 것'이라 하여 탄압을 받았다. 태평양 전쟁 이후 징,쇠 등의 공출로 약탈되고, 두레 공동체의 파괴와 함께 연희가 급격히 쇠퇴하였다.

두레패적 연희는 일제 강점기 강제적인 파괴와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의 홍수에 의해 더욱 쇠퇴하였다. 1970

년대 초 유신체제의 새마을 운동으로 민족적 전통을 무시한 서구적 합리주의적 발상으로 역시 민족적인 것을 미신, 낭비적인 것이라 하여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당산, 악기 등을 없애 버렸다.

### '모장말 두레'에서 '모정농악'으로

우강면 원치리 모정마을은 농악으로 유명한 곳이다. 모정농악이 비록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구호에 파묻혀 쇠퇴했지만 흥겨웠던 농악놀이를 보면서 자란 이 마을 청장년들은 쉽게 고향을 등지지 못하고 있다.

두레패들은 마을 잔치날이나 명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를 심다가도, 벼를 베다가도 풍물놀이를 했다. 두레를 할 때는 북을 쳐서 모았고, 종고를 치면 그것에 따라 상대방이 종고로 신호를 알린다. 종고는 "딩-딩딩딩, 덩-딩딩딩, 덩-딩딩딩"하고 친다.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북을 쳐서 답변을 한다. 종고는 "다른 두레를 부를 때, '두레하러 나오라 할 때, '두레 먹자'등을 알리는 것으로 균중을 모을 때 하였다.

'모정농악·모장말 두레'가 유명한 것은 박헌욱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20여 년 전 작고했는데 상소로써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는 아명이 재돈이고 국악 하모니를 전부 알아 우리나라 농악 1인자로 손꼽혔다. 그래서 모장말 두레라 하면 유명하였다. 아나네들도 풍물소리가 들리면 그 장단에 맞춰 보리쌀을 일구다 다 흘려 보내 가난하게 살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이 마을에는 있다.

1970년대 초가집 없애라 마을길 넓히라 바쁘기만 했던 당시 '모정농악'은 가난을 가져온 주범이 되어 점차 쇠퇴해 갔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모정농악'은 주민들을 끈끈하게 엮어 주었던 역할을 해 왔다. 당진이 충청남도에서 농악놀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췌·요약)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올봄 문화재단사업

신개념 오페라 '로미오 & 줄리엣'

## 클래식의 두 거장, 셰익스피어와 모차르트의 콜라보

모차르트의 음악이 함께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올 봄 당진문화재단이 클래식의 두 거장, 셰익스피어와 모차르트의 콜라보 공연을 준비했다. 4월 19일 (목)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신개념 오페라 '로미오 & 줄리엣'이다.

〈로미오 & 줄리엣〉은 영국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극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다. 즉 대본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음악은 모차르트의 곡 중 발췌해 대본에 맞게 적절히 활용했다.

공연 연출은 국립 과립 8대학 연극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극작품 활동을 해 온 임선경씨가 맡았다. 로미오 역에 안남근, 줄리엣 역에 양지연 씨가 무대에 오르며 연주는 안디무지크 필하모니아가 합창은



글로벌아트오페라합창단이 이운복 지휘 아래 함께 호흡을 맞춘다.

안디무지크 필하모니가는 순수한 열정으로 개성적인 하모니를 연주하며 특별한 음악적 이상과 감흥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순수 민간 오케스트라다. 2005년 창단연주와 대전살내악축제 초청연주, 대전예술의전당 주최 스프링 페스티벌 〈쇼스타코비치의 추억〉, 〈봄의 소리〉 공연에서 보여준 절묘한 앙상

블과 열정적인 연주는 이 지역 음악계에 신선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008년 스프링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카르멘과 스페인의 정열〉 공연은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로벌아트오페라합창단은 오페라 공연뿐만 아니라 폭넓은 장르의 레퍼토리와 오페라합창의 정수를 보여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기 오페라공연 및 기획연주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임선경 연출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그리고 그에 맞춰 추는 춤을, 감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무대에 올린다. 모차르트의 음악만큼이나 섬세하고 어려운 작품이다. 작업자로서 부담이 되는 이 두 소재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선을 바꾸어 보니 내가 관객이라면 가장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극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모차르트의 음악이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과 뒤에서 무대를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작품의 섬세한 만큼이나 공들여 준비했다. 관객이 이 풍성한 아름다운 속에서 어린 두 연인의 외로움을 함께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주최, 주관, 제작은 당진문화재단과 대전예술의전당이 함께 한다.

△예매문의: 041-350-2911-4/티켓: R2만원, S1만원 A5천원 / 중학생 이상 관람가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 변사를 아시나요? 무성영화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1948년 제작된 〈검사와 여선생〉을 다시 만나는 기회  
문화가 있는 날, 전석 1천원

"억울하게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몰렸으니...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더냐!"

젊은이에게는 흑백영화에서나 봤던 생소한 장면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어린시절 추억으로 기억되는 무성영화와 변사. 그 색다른 공연이 당진에서 재현된다. 당진문화재단이 변사경력 30여년의 최영준과 함께하는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준비했다. 〈검사와 여선생〉은 전석 1천원에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마련됐다.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은 변사의 가치와 기능을 재조명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됐다. 제작진은 무성영화 변사극을 새로운 장르로 구별하고 재미있고 감동 넘치는 작품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변사경력 30년의 최영준은 연극배우, 개그맨, 가수, 라디오 진행자 등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이수일과 심순애〉, 〈나운규의 아리랑〉, 〈검사와 여선생〉을 무성영화 변사공연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리고 있다. 또한 〈무성영화 발전소〉를 설립, 직접 무성영화를 제작, 감독, 기획하는가 하면 〈최영준 유랑극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0년간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다. 특히 문화관광부 후원, 한국 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에 참여해 전국에서 연 50여회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변사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1948년에 제작된 〈검사와 여선생〉은 근대유형문화재 제344호로 지정된 무성영화다. 탈옥수를 숨겨준 것을 오해한 남편이 칼부림을 하자 실수로 쫓겨 죽인 여선생이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마침 담당 검사는 여선생의 소학교 재직 시절 극진히 돌봐준 가난했던 학생이다. 선생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검사는 재판장에서 그녀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내어 무죄로 석방시킨다.

70년 전 활동사진의 신기함에 빠져 있던 무성영화 시절,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던 변사는 단순한 영화상의 해설자가 아니었다. 일상에 지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슬픔을 위로해주는 친구이자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끈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유성영화가 들어오면서 변사의 인기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갔던 무성영화와 변사. 당진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

△공연정보 - 공연일시: 3월28일 19:30 /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티켓: 전석 1천원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 올봄, 이 공연 2018 spring concert '정동하 & 손승연'

## 봄날 열리는 정동하, 손승연의 듀엣 콘서트

화이트데이 전날 만나는 'Two for the Best'  
가왕급 두 가수와 최고의 세션이 만드는 감동의 무대

KBS2 '불후의 명곡'을 통해 실력과 보컬로 사랑받고 있는 가왕급 가수 정동하와 손승연이 함께 당진을 찾는다. 두 가수는 'Two for the Best'란 타이틀로 올 봄 최고의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당진문예의전당 시즌공연으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에서 두 가수는 발라드부터 락을 넘나드는 폭넓은 대중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두 가수와 최고의 세션이 함께 하는 콘서트로 그동안 당진에서 쉽게 만나지 못

했던 새롭고 세련된 무대를 통해 대중과 색다른 소통을 꾀한다는 것이 주최측이 밝힌 이번 공연의 컨셉이다.

정동하는 KBS2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사상 최초로 최고 득점을 두번이나 기록하며 가슴을 저미는 애절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부활의 9대 보컬, 정동하는 현재 솔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손승연은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가수로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불후의 명곡'에 출연, 최단 기간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시원한 고음과 색다른 매력으로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다.

공연은 화이트데이 전날인 3월13일(화) 저녁 7시30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티켓오픈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당진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 당진문화재단뉴스

##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콘서트 2월 문화가 있는 날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 '고상지'의 콘서트가 열렸다. 지난 2월28일 당진문화재단 대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탱고의 영혼이라 불리는 '반도네온'의 연주곡들로 꾸며졌다. 고상지의 음악은 탱고의 본고장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기법들과 악기 구성을 사용하면서도 동양적 어드벤처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녀는 탱고에만 한정하지 않고 K-POP 스타들의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는 등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편곡하는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약하며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당진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는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대공연장 무대 위에 객석을 설치하는 특별한 포맷의 음악회다. 평소 100석에서 150석 내외로 운영되었으나, '고상지'의 콘서트는 그녀의 인기를 반영하듯 시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 300석이 오픈되었다.

## 정크아트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전시회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



버려진 고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놀라운 상상체험,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이 지난 2월9일부터 3월8일까지 당진문화재단 전시실에서 열렸다. 겨울방학과 신학기 시즌에 맞춰 기획된 이번 전시는 정크아트를 주제로 한 새로운 형식의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매주 토요일마다 최정현 작가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금요일마다 정크아트 강사와 함께 정크아트를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반쪽이 최정현 작가는 잘 만드는 사람이기 전에 잘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찮은 물건을 놀라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예술성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초등, 중등 미술교과서에 실린 최정현 작가의 작품을 실제로 만날 수 있어 학생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 2018 예술영재아카데미 운영 지난해 이어 영재 12명 참여

당진문화재단이 잠재력 있는 예술 영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2018 예술영



재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해 선발된 예술영재를 포함한 12명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1회 각 전공분야에 대한 영재수업을 받게 된다. 예술영재 참여자는 뮤지컬 6명, 바이올린 3명, 작곡 3명으로 당진문화예술학교 전용 연습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개인연습도 하게 된다. 예술영재아카데미는 타 교육 기관과 차별화된 당진문화예술학교만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9월 영재 1기의 성과발표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같은달 분야별 영재를 선발해 10월부터 영재아카데미 2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 39개 문화예술 강좌 실시 2018 시민예술아카데미 상반기 강좌



당진문화예술학교 2018 시민예술아카데미 상반기 수업이 오는 3월6일부터 5개월간 실시된다.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2월 당진시민 및 당진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올해 상반기 시민예술아카데미는 총 37개 강좌로 이모작음악교실, 아트갤러리, 웰위댄스, 문예놀이, 문예아카데미 분야로 마련됐다. 한편 하반기 수강은 8월7일부터 시작되며 접수 및 강좌에 대한 안내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올해 '별별동지' 14개 단체 선정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당진문화재단이 2018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별별동지'에 14개 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는 호수시문학회, 당진시예술소년소녀합창단, 라온, 백동동이2010, 당진소리별색소폰앙상블, 당진소년소녀합창단, 당진시민합창단, 어린이책시민연대당진지회, 당진청소년오케스트라, 당진아트 챔버, 아우름, 아우름아카데미, 줌마타, 타타타이다.

이들 단체는 3월6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 간 창작스튜디오를 지원받아 사용한다. 이후 활동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성과심사 후 2차 연장사용기간을 확정하게 된다.

별별동지는 당진시민으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관련 학술, 포럼, 사회단체 등에 대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8 당진문화재단 사업설명회 문화진흥기금 설명회도 진행



당진문화재단이 2018 사업설명회 및 문화진흥기금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과 참석자들에게 새해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설명회는 2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진문화재단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문화, 예술인을 비롯한 당진시민이 참여해 재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받았다. 사업설명회 이후 당진문화진흥기금 설명회도 진행됐다.

## 주한영국문화원과 문화예술교류 MOU 체결 공연, 전시 기획자문 등 약속



지난달 27일 당진문화재단이 주한영국문화원과 문화예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문화재단과 주한영국문화원은 이날 당진문화재단 사무실에서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문화예술사업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기획 자문 ▲창의성 교육 위한 대화증진 ▲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협력, 지원 ▲양국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과 자문 등이다.

이명남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은 "협약이 체결되면 이후 당진시와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영국문화원과 상호협력해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당진문화재단과 주한영국문화원, 당진시, 당진시의회 등이 주관했다.

영국문화원은 1934년 영국 왕실 인가에 따라 설립된 자선기관이자 공공기관이다. 주한영국문화원은 1973년 서울에 설립된 이래 문화예술, 교육 및 사회 분야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관계 사업으로 양국 간 친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주한영국문화원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 6개 문화예술 기관을 비롯해 약 30여 개 정부 및 유관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Photography Exhibition  
Dang-Jin 2018  
왕성호 | 산짜라 물따라

2018.  
03. 16 (FRI)  
- 22 (THU)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충남 당진시 무수동 2125-21 / 041-350-2911-4 / www.dangjin.or.kr | (입장료) 무료 | 관람시간: 10:00~18:00

당진 문화의 시간(가)전 2018  
Photography Exhibition  
Dang-Jin 2018  
왕성호 | 산짜라 물따라

2018.  
03. 16 (FRI)  
- 22 (THU)

OPENING 2018. 03. 16 PM18:00  
당진문화재단 전시관 제1전시실

초대의 글  
(재)당진문화재단과 당진문화재단은 이번 공연 대상으로 유익한 환경을 통해 직간접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건조적이고 무심한 듯한 풍경 사진으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왕성호 작가를 초대하여 당진 문화의 시간(가)전 2018을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품 부탁드립니다.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

2018 SPRING CONCERT

TWO for the BEST

# 정동하 · 손승연

2018. 3. 13. TUE 19: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주최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당진광역시, 당진문화재단 | 문의 | (041) 350-2911~4 | 홈페이지 | www.dangjin.or.kr

관람료 | 일반석 4만 원, 예술석 3만 원, 장애인석 2만 원, 고령학생 이해차감을 지원 30% (본인만 적용)

청소년 20세~24세 이해차감을 지원 30% (본인만 적용) \* 장애 ·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

장애인(신장) : 본인 및 동반자 2명, 그 외 장애인 1명 \* 국가유공자, 장애인(신장) : 본인만 50% 적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학생증, 예술인카드,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명세서 지참. 이 사항 사항은 현장에서 사예 지참 후 입장가능.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명화감상과 더불어 영화 속 명곡들을 LIVE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씨네라이브(CINE LIVE)

# 가면 속의 아리아

Le Maitre de Musique

2018. 3. 22. THU 19:30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주최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당진광역시, 당진문화재단 | 문의 | (041) 350-2911~4 | 홈페이지 | www.dangjin.or.kr

관람료 | 일반석 4만 원, 예술석 3만 원, 장애인석 2만 원, 고령학생 이해차감을 지원 30% (본인만 적용)

청소년 20세~24세 이해차감을 지원 30% (본인만 적용) \* 장애 ·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

장애인(신장) : 본인 및 동반자 2명, 그 외 장애인 1명 \* 국가유공자, 장애인(신장) : 본인만 50% 적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학생증, 예술인카드,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명세서 지참. 이 사항 사항은 현장에서 사예 지참 후 입장가능.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

변사경력 30여년의 최영준과 함께하는

· 무성영화 ·

# 검사와 여선생

억울하게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몰렸으니...  
아! -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런 말이지나.

2018. 3. 28. WED 19: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특설무대

주최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당진광역시, 당진문화재단 | 문의 | (041) 350-2911~4 | 홈페이지 | www.dangjin.or.kr

관람료 | 일반석 4만 원, 예술석 3만 원, 장애인석 2만 원, 고령학생 이해차감을 지원 30% (본인만 적용)

청소년 20세~24세 이해차감을 지원 30% (본인만 적용) \* 장애 ·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

장애인(신장) : 본인 및 동반자 2명, 그 외 장애인 1명 \* 국가유공자, 장애인(신장) : 본인만 50% 적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학생증, 예술인카드,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명세서 지참. 이 사항 사항은 현장에서 사예 지참 후 입장가능.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

Dangjin Citizens Orchestra

# 당진 시민오케스트라

## 신입단원모집

접수기간 | 2017. 2. 21. TUE ~ 3월 31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 |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팀 | (041) 350-2933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재단